"모든 준비 끝났다"…고흥 녹동항 1천500대 드론쇼 팡파르

내일 첫 개막…멀티미디어 불꽃놀이 등 볼거리 '풍성'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지역 관광·경제활성화 기대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13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식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다. 녹동항 드론쇼는 전남 최초로 드론 1천500대 군집비행쇼, 멀티미디어 불꽃쇼, 오리퇴치 상용 드론 비행시연, 레이져쇼 등 풍성한 볼거리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의 화려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 마케팅 구축과 지역 관광·상권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식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 최초로 드론 1천500대 군집비행쇼, 멀티미디어 불꽃쇼, 오리퇴치 상용 드론 비행시연, 레이져쇼 등 풍성한 볼거리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개막 공연 작품은 '2024 힘찬도약 희망찬 고흥의 봄!'을 주제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공감 연출 콘텐츠를 구성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매 주말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일원에 먹거리 타운 포차&푸드트럭존과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공연장 주변으로 드론쇼와 연계해 확 달라진 소록대교 경관조명쇼, 민속놀이 체험존, 돔영상관, VR 체험관 등 볼거리, 즐길거리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고흥 관광 활력을 높인다.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 제고는 물론, 보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고흥의 대표 야간 볼거리 관광 기획 상품이며, 전남 최초 상설 공연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선 4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드론 700대를 활용한다. 군집 비행 기술과 입체감 있는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새로운 콘텐츠 주제를 마련해 운영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녹동항 드론쇼는 매주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연출 콘텐츠를 구성해 음악에 맞춰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환상적인 '공중 아트 조형물 드론 라이트쇼 군집비행 퍼포먼스' 공연을 펼쳐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다. 누적 관람객 18만여명, 직접적 경제 150억원의 효과를 거뒀다.

올해도 녹동항을 비롯해 고흥군 전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는 드론쇼 개막을 앞두고 친절, 위생 등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공영민 군수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삼아 화려하게 수놓을 녹동항 드론쇼 상설 공연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의 또 다른 매력과 함께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람객이 안전한 축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계획도 철저하게 세웠다"며 "축제에 방문해 매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으로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드론쇼 공연은 녹동항 어디서나 관람이 가능하고, 우천 등 기상악화로 공연이 연기·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여수시, 올해 일자리 1만6천여개 창출 '박차'

고용률 69% 목표…30개 부서·125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

여수시는 올해 일자리 1만5천913개 창출, 고용률 69%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

세부 계획에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난해 분야별 일자리 1만5천248개(목표 대비 122%) 창출·고용률 69% 달성과 올해 정부경제정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해 설정했다.

시는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화합 일자리 행정혁신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일자리 균형 성장 ▲시민중심 일자리 복지도시 구현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워 30개 부서가 1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참여부서 6개가 증가해 8개 실천 과제가 추가됐으며 2026여수세계박람회, 투자유치, 미래산업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여수형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전략산업 지원 등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시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활성화 정책인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매년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여수=김진선 기자

'군민 건강 증진' 구례군, 첫 골프연습장 개장

55억 투입…면적 932.65㎡
비거리 250m·28타석 규모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구례 골프연습장이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영사, 축사, 커팅식, 시타, 연습장 관람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

구례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 면적 932.65㎡(지상 2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 준공했다.

구례군 용방면 광의철쭉동산로 170에 위치한 구례 골프연습장은 비거리 250m에 28타석으로 조성됐다. 운영 시간은 매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초보자를 위한 골프 레슨도 가능하다.

골프연습장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과 휴식을 취하고 일상에 또 다른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에 골프연습장이 처음 건립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활 체육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군, 특별 징수기간 운영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장성군은 11일 "6월 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인 18억3천여만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특별징수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고질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광양 마동정수장, 친환경 견학지로 '인기'

소수력·태양광발전 동시 가동
연간 1억500만원 전기료 절감

광양시 마동정수장이 친환경정수장 견학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마동정수장의 시설용량은 일일 5만t으로 중마동 등 광양동부지역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70㎾ 소수력발전시설과 420㎾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정수장 내부 전기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5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소수력발전시설은 수어댐과 마동정수장 착수정과의 낙차가 약 20m 발생함으로 마동정수장 착수정 전단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마동정수장 유휴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정수장에서 태양광발전은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마동정수장처럼 소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하는 정수장은 많지 않아 유치원 어린이들의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은 물론, 정수장을 방문하는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의 견학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마동정수장에는 코로나19 이전 해마다 유치원, 학생, 공무원 등 400여명이 수돗물 생산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최근 용강초등학교 80여명이 정수장을 견학했으며, 앞으로 지역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물 생산 과정과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학습 장소로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광양시 정수장을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친환경정수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두다다쿵'과 소풍 순천만국가정원 키즈가든에서 장난스럽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두다다쿵' 두더지 캐릭터 '두다'와 친구가 되어 정원 곳곳을 탐험하며 모험을 즐기고 있다. 시는 '두다'와 함께 정원 곳곳을 탐험하는 '작은 정원사의 모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순천시 제공〉

담양군 '재가 암 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담양군은 "최근 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조모임은 재가 암 극복 사례와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안정과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오는 5월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총 5회 진행한다.

암 환자 건강관리 교육, 영양 식생활 강의·원예치료, 건강 체조, 한방 연고 만들기 체험, 공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담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전화(061-380-3992)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재가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신을 격려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 환자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 배포

오늘 카카오톡 보성군청 채널서 선착순 3만5천명 지급

보성군은 11일 "12일 카카오톡 '보성군청' 채널을 통해 보성군 SNS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사진) 배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S삼총사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보성군 SNS 캐릭터 '녹차몬', '꼬막몬', '키위몬'이 보성다향대축제를 응원하고, 보성차밭을 즐기는 모습 등을 귀엽고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 친구 선착순 3만5천명에게 지급된다. 미리 '보성군청' 채널을 추가해 두면 순차적으로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전송된다.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이모티콘 이외에도 보성군의 주요 소식과 축제·공연 정보 등의 소식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는 'BS삼총사가 쏜다'라는 보성군 SNS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보성다향대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보성군 SNS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귀여운 BS삼총사 이모티콘처럼 보성다향대축제에 와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S삼총사'는 보성 대표 특산품인 보성녹차와 벌교꼬막, 보성키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2020년 콘텐츠 진흥원 주관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보성=임병언 기자